

OECD DAC 동향

(2015. 1. 30)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I. Development Issue

1. 2012 DAC 유상차관 보고서(Secretariat Report on ODA Loan in 2012) 주요 내용
2. 2014 비구속성 ODA 보고서(Aid Untying: 2014 Report) 주요 내용

II. DAC 회원국 동향

1. 일본 JICA, 이슬람민간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14.10.11)
2. 프랑스 AFD, 기후채권(Climate Bond) 발행('14.09.17)



I. Development Issue

1. 2012 DAC 유상차관 보고서(Secretariat Report on ODA Loan in 2012) 주요 내용

☐ DAC는 '12년 총 10개 회원국*이 제공한 차관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14. 9. 26 DAC 정례회의에서 발표

* 호주, 벨기에, EU,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일본, 폴란드, 포르투갈

☐ 조사대상 회원국 대부분이 1978년 DAC 권고사항의 최소 증여율 조건을 준수하였으며, 일부 회원국의 총 ODA 대비 차관 비율은 전년 대비 상승

☐ 현재 DAC에서는 공공재원이나 보조금을 포함한 시장재원으로 구성된 차관만을 양허적이라고 주장하나, EU, 프랑스, 독일은 전체 ODA중 55%가 정부 보조금 불포함 시장재원차관

☐ ODA 차관의 대부분은 개도국 소득수준과 반비례(소득수준이 낮을 수록 차관의 양허성은 높음)

가. 유상차관 평가(Assessment)

(1) ODA 적격기준 대비(Against ODA Directives)

☐ 조사대상 차관 모두 개발목적에 부합하고, 증여율(Grant Element) 25% 이상에 부합

○ 조사대상 10개국 차관의 '12년도 평균 증여율은 60%이고 한국은 87.9% 기록. 반면 EU·프랑스(48%), 독일(46%)은 짧은 평균 만기기간*과 높은 평균이자율**로 낮은 증여율 기록

* EU 18년, 프랑스 19년, 독일 16년, 전체평균 33년

** EU 2.4%, 프랑스 2.7%, 독일 2.2%, 전체평균 0.8%

- 원조조건에 대한 1978년 DAC 권고사항*에 명시된 ① 최소 증여율 86% 이상 준수 조건은 EU(82.6%), 프랑스(79.5%), 포르투갈(84.6%)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준수하고, ② 최빈국(LDCs) 관련 조항**은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회원국이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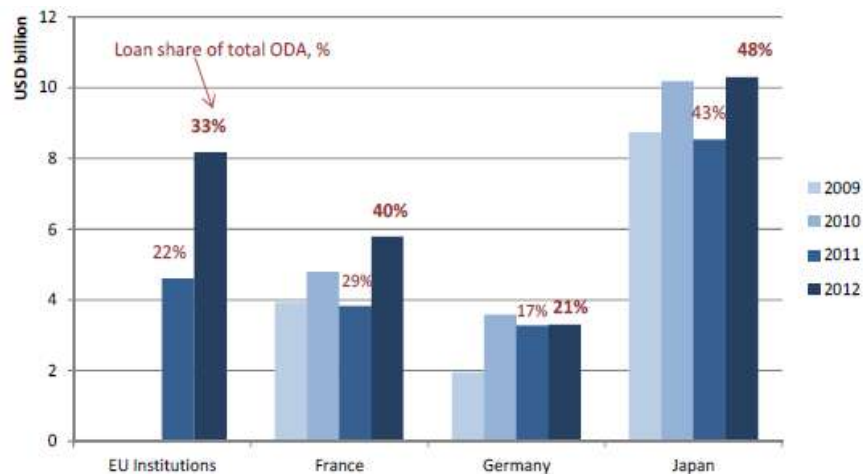
* Recommendation on Terms and Conditions of Aid(1978)

** 개별 최빈국 3개년 평균 증여율 86% 이상 또는 전체 최빈국 매년 증여율 90% 이상 준수

- 주요 회원국의 총 ODA 대비 차관지원 비율은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임

- EU·프랑스 11%p, 일본 5%p, 독일 4%p 증가

<그림 1> EU, 프랑스, 독일, 일본의 총 ODA 대비 차관 비중 현황



출처: DCD/DAC(2014)40 Secretariat Report on ODA Loans in 2012

(2) 통계보고기준 대비(Against the practice of ODA reporting)

- 적정 양허성 수준(Concessionality in character)에 대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사무국은 시장재원 차관의 경우 이차보전 등 공적 보조금을 포함한 경우에만 양허적이라고 주장
- 한국을 비롯, 호주, 벨기에,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은 대부분 ① 공공재원이거나 ② 보조금을 포함한 시장재원으로 차관이 구성되어 있어 통계보고기준을 변경하지 않음
- EU, 프랑스, 독일의 경우, 전체 ODA 중 55%에 해당하는 차관이 정부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시장재원차관*에 해당하며, 이들은

대개 법적 보증 하에 제공되고 차관별 원가회수방식 (cost-recovery basis)**에 기반하여 지원조건 결정

* EU 54건, 프랑스·독일 각각 19건

** 행정비용과 위험부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조달금리에 마진(margin)을 부과하여 대출 금리 결정

- '12년 중 보조금을 포함하지 않은 시장재원차관은 총 92건에 90억 달러를 기록, '11년(62건, 70억 달러)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공적 재원차관의 경우 IDA 조건* 또는 수원국 소득그룹에 따른 차등 지원조건을 반영하여 차관 제공

* 저리(low interest), 상환기간 25-38년, 거치기간 5-10년 조건

(3) HLM 합의사항* 대비(Against the High Level Meeting principles)

* '12년 12월 HLM에서 ODA의 적정 양허성 수준 논의와 관련, 아래 사항에 합의

- ① 대중의 비판적 평가 고려
- ② 전반적인 ODA 수준에 급격한 변화를 주지 않을 것
- ③ 다자개발재원의 양허성 정의와 모순되지 않을 것
- ④ ODA 개념 정의 유지
- ⑤ ODA 차관이 이익추구를 위해 운영되지 않을 것

- (합의사항 ③) IMF/WB 할인율(5%)을 적용할 경우 ODA 차관의 양허성이 현저히 감소

- IMF 방식을 적용할 경우 2012년 ODA 차관 중 절반 이상 (총 160억 달러)이 양허성 기준에 미달하며, IMF 적격 수준*에 부합한 차관만을 ODA로 측정할 경우 당해 총 ODA 승인액의 8.6% 감소

* 할인율 5% 적용시 양허성 수준 35% 이상

- 한편, 한국의 경우 IMF 방식 적용시 68%, OECD 통화별 차등할인율(이하 DDR) 적용시 74%의 양허성 수준 기록

- (합의사항 ⑤) 독일, 프랑스, EU 등시장재원차관을 제공하는 회원국은 차관의 상환액이 개발재원으로 재투자함으로써 다섯번째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

나. Post-2015 양허성 정의 논의에 기여

(1) 차관 양허성 분석(Analysis of the concessionality of loans)

□ 증여율을 보완하기 위한 양허성 수준 계산을 위해 다음의 두 가지 방식 활용

① IMF 방식

○ 2013년 10월 IMF는 DDR 적용방식에서 고정할인을 5% 적용 방식으로 양허성 차관 측정방식 변경

- 미달러 10년 평균 상업표준금리(CIRR)* 3.85% + 마진 1.15% = 5%

* Commercial Interest Reference Rates의 약자

② OECD 방식

○ DDR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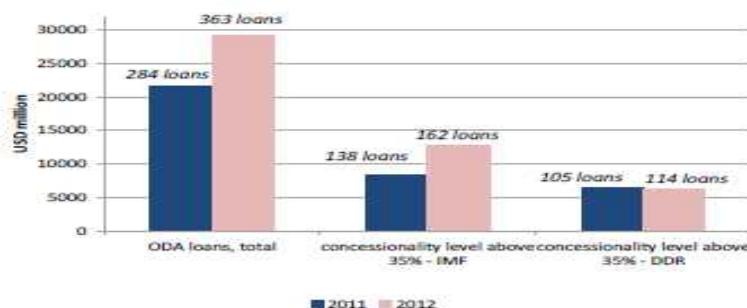
- 전년도 8월에서 차기년 2월까지 매달 CIRR의 평균 + 상환 기간별 차등 마진*

* 15년 이하 0.75%, 15~20년 1%, 20~30년 1.15%, 30년 초과 1.25%

□ '12년 차관의 양허성 측정 관련, IMF 할인율(5%)을 적용할 경우 양허성 수준은 34%, OECD DDR을 적용할 경우 24%로 측정됨

□ '12년 중 승인한 차관 총 363건 중 IMF 양허성 적격수준(35%)에 미달하는 차관은 201건에 해당

<그림 2> 증여율 측정 방식별 양허성 준수 차관 현황(2011-12)



출처: DCD/DAC(2014)40

(2) 수원국별 차관지원 현황

(Analysis of the recipient breakdown of loans)

□ 수원국의 소득수준과 차관의 양허성은 반비례

- EU, 프랑스, 독일, 일본의 경우 빈곤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양허성 수준 증가

- 프랑스 : 최빈국 앞 평균증여율 59%, 상위중소득국 앞 평균증여율 44%

- 일본 : 최빈국 앞 평균증여율 85%, 상위중소득국 앞 평균증여율 65%

- 저소득국일수록 상환기간은 길고 이자율은 낮게 측정됨

□ 그러나 EU와 프랑스의 경우 저소득국(LIC) 차관의 양허성 수준이 IMF의 적격 기준인 35%에 미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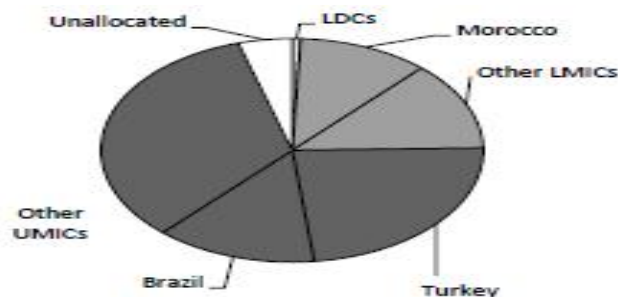
□ ODA 차관의 대부분은 중소득국(MIC)에 제공(하위중소득국 53%, 상위중소득국 38%)되며 저소득국(LIC)은 7%에 불과

- 주요 수원국은 인도, 터키, 모로코, 베트남, 브라질, 이집트, 필리핀, 튀니지, 세르비아, 이라크

□ 반면, 보조금 불포함 시장재원차관의 경우 상위중소득국(71%)에 집중되어 있으며, 하위중소득국은 24% 차지

- 동 차관의 수원국은 터키, 브라질, 모로코, 세르비아, 중국, 이집트, 우크라이나, 튀니지, 멕시코, 콜롬비아이며, 해당국 앞 저양허성 조건의 차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됨

<그림 3> 총 ODA 차관의 국별 지원비중



출처: DCD/DAC(2014)40

2. 2014 비구속성 ODA 보고서(Aid Untying: 2014 Report) 주요 내용

- DAC는 '14년 9월 DAC 정례회의에서, 2001 DAC 비구속성 권고안과 개발원조 고위급포럼(HLF)의 비구속성 공약을 기반으로 DAC 회원국의 '12년도 비구속성 ODA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 발표
- DAC 비구속성 권고안과 관련, '12년 권고대상 ODA 중 91%가 비구속성으로 보고되고, 비구속성 원조 지원노력공유를 측정하는 비구속성 원조비율(기준치 0.6)과 종합지표(기준치 0.04)의 회원국 평균은 각각 0.83, 0.11를 기록
- 비구속성 원조의 투명성과 관련, 비구속성 ODA의 공여국 기업 계약 체결 비율이 높아, 향후 실질적 비구속성 달성을 위한 노력 필요
- '13년 본 권고안 준수 현황 검토 회의에서 대부분 DAC 회원국은 권고안 지속 준수에 합의하였으나 일본은 non-LDC HIPC 앞 일부 ODA에 대해 구속성 ODA 지원 입장 발표
- HLF의 비구속성 공약과 관련, '12년 전체 양자원조 중 78%가 비구속성으로 지원되고 전체 ODA 중 구속성 여부 미보고 비율이 3.5%로 크게 감소

가. DAC 비구속성 권고* 이행

* DAC는 2001 최빈국에 대한 비구속성 ODA 권고(Recommendation on Untying ODA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이하 DAC 비구속성 권고)를 합의하고 '08년 개정안을 통해 최빈국 이외 고채무빈국(이하 non-LDC HIPCs**)까지 범위를 확대했으며, '13년 비구속성 검토 회의결과 등을 반영하여 '14년 권고안 재개정

** 볼리비아,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이아나, 온두라스, 니카라과, 콩고 공화국

□ DAC 비구속성 권고 이행 현황(Untying agreed forms of ODA)

- '12년 최빈국·고채무빈국(이하 LDC·HIPC)에 제공된 전체 양자 ODA 중 69%가 권고대상*에 해당, 이 중 91%가 비구속성

* 국제수지(Balance of payment) 및 구조조정 지원, 채무면제, 부문별 프로그램 원조, 투자 프로젝트 원조(investment project aid), 수입·원자재 지원(Import and commodity support), 상업적 서비스 계약(commercial services contracts), 조달 업무 수행 NGO에 지원되는 ODA가 해당

- DAC 24개 회원국 중 18개국이 각국 권고대상 ODA의 90~100%를 비구속성으로 지원하였으며, 한국은 권고대상 ODA 중 40%를 비구속성으로 지원했고, 이는 2008년 대비 147% 상승한 결과임
- 상기 비구속성 지원비율(90~100%)에 미치지 못한 국가는 스페인(87%), 미국(80%), 오스트리아(77%), 한국(40%), 포르투갈(16%)임

□ 노력 공유(Effort-Sharing)

- '01년 권고안 제정시 비구속성 ODA 지원을 위한 회원국 간 노력을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참고지표(Reference Indicators) 제시
- ① 비구속성 ODA 비율(Share of ODA untied) :
비구속성 양자 LDC·HIPC ODA/전체 양자 LDC·HIPC ODA
(기준치 0.6)
- ② 종합지표(Composite Indicator) :
(양자 LDC·HIPC ODA/GNI × 비구속성 양자 LDC·HIPC ODA 비율) + 다자 LDC·HIPC ODA/GNI (기준치 0.04)
- '12년 DAC 회원국의 지표별 평균은 각각 0.83, 0.11 기록

□ 투명성(Transparency provisions)

- 비구속성 ODA의 사전통보(ex ante notifications) 및 계약체결(Contract Awards) 관련 정보는 OECD의 Untied Aid public bulletin board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원국 별 준수 여부가 상이하여 비구속성 ODA 관련 완전한 정보를 취득하기 어려움
- 계약체결의 경우, 건수를 기준으로 전체 계약의 46%가 계약 발주 공여국, 7%가 기타 공여국(DAC 비회원국 포함), 24%가 LDC·HIPC 국가의 기업이 선정

- 그러나 사업의 비용·규모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체 중 59%가 계약 발주 공여국 기업에 해당되고 LDC·HIPC 기업은 5%에 불과
 - DAC 회원국별로 비구속성 ODA의 공여국 기업 계약 체결 비율 (비용·규모 기준)*이 상이한 바, 공여국들이 실질적인 비구속성 ODA 비율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함
- * 한국,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영국, 미국, 덴마크, 핀란드는 75% 이상을 기록한 반면, 일본은 18%, 프랑스는 15%로 낮은 비율 기록

□ 개정 권고 준수 관련 DAC

- '08년 권고 개정(non-LDC HIPC 국으로 비구속성 확대) 이후 '13년에 진행된 비구속성 검토 회의에서, 일본*을 제외한 모든 DAC 회원국이 차기 검토 시기인 '18년까지 본 권고안을 지속 준수하기로 합의
- * 일본은 본 회의에서 non-LDC HIPCs들에 제공되는 ODA의 일부를 구속성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 발표

나. 전반적 비구속성 ODA 현황* (양자 ODA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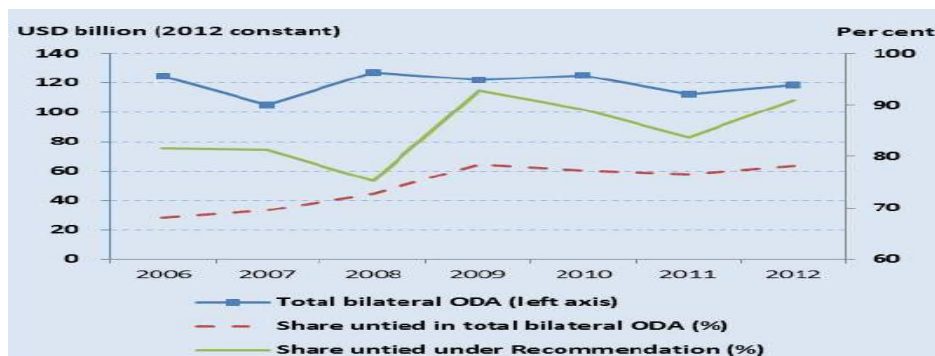
* OECD DAC는 제3차 원조효과성 회의(HLF-3, 2008, 아크라)와 제4차 원조효과성 회의(HLF-4, 2012, 부산)를 통해 DAC 회원국의 비구속성 ODA 준수 노력 촉구

□ 비구속성 ODA 규모

- '12년 전체 양자 ODA 중 78%가 비구속성으로 지원되었으며, '08~'12년 동안 전체 양자원조는 7% 감소한 반면 비구속성 ODA는 9% 증가
- 한국은 동 기간 동안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 비율이 94% 증가하였으며 '12년 전체 양자 ODA의 약 50%가 비구속성에 해당
- DAC 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은 HLF-3 및 4에 채택된 비구속성 공약의 적용 범위를 DAC 비구속성 권고안에 한정하여 해석하며, 동 기간 동안 전체 양자 ODA의 비구속성 비율이 각각 7.2%, 15.1% 감소

- 한편, 동 기간 동안 LDC·HIPC에 대한 회원국 전체 양자원조는 11% 감소한 반면 비구속성 ODA는 20% 증가
- 동 기간에 제공된 구속성 ODA 중 70%는 프로젝트형 원조에 해당하며, 국제기구에 파견된 공여국 인력 비용 및 출자(12%), 전문가 및 기술협력(8%)이 뒤를 이음

<그림 4> 총 양자 및 권고대상 ODA 중 비구속성 비중('06-'12)



출처: DCD/DAC(2014)33 Aid Untying: 2014 Report

□ 구속성 여부 보고

- HLF-4를 통해 ODA 구속성 여부 보고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 증진이 합의됨에 따라 '12년 전체 ODA 중 구속성 여부 미보고 비율이 3.5%로 크게 감소
- 그러나 DAC 회원국별로 구속성 여부 적용 기준이 불명확하여 일관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다. 향후 전망

- DAC 회원국의 지속적인 비구속성 ODA 준수를 촉구함과 동시에 비구속성 보고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DAC 비회원국에 대한 DAC 권고안 적용 근거 부재로 향후 구속성 ODA에 대한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논의 필요

II. DAC 회원국 동향

1. 일본 JICA, 이슬람민간개발공사*와 업무협약 체결('14.10.11)

* Islamic Corpo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tor(이하 ICD)의 약자로, 이슬람개발은행(IsDB)과 연계된 다자기관이며 샤리아(이슬람법)를 기반으로 민간 부문 금융지원 담당

- ☐ 일본 JICA는 이슬람 금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WB/IMF 연차 총회('14.10.11) 중 ICD와 업무협약 체결
- ☐ 본 협약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금융협력을 골자로 하며 이슬람 채권(Sukuk)*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
 - * 이슬람 국가들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이자를 금지하는 이슬람율법에 따라 투자자들에게 이자 대신 배당금으로 수익을 배분함
- ☐ 본 협약 체결을 통해 향후 이슬람 화폐시장을 활성화시켜 회원국의 ICD 투자를 증진하고 민간 부문 투자를 증가시켜 포용적인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프랑스 AFD, 기후채권(Climate Bond) 발행('14.9.17)

- ☐ 프랑스 AFD는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 지원 목적으로 사상 첫 10억 유로 상당의 기후채권(Climate Bond) 발행
- ☐ 본 채권은 상환기간 10년에 1.375%의 연간 쿠폰을 포함하고 발행가격은 98.976%이며 Standard & Poor's와 Fitch Rating 으로부터 각각 AA, AA+ 등급 취득
- ☐ 본 채권은 프랑스 공공기관 사상 최초로 발행한 사회적 책임 채권 으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